

## 人間化 教育의 問題



聖心女大學長 高道任

모든 大學은 각기 그 나름의 創學 理念을 갖고 있다. 예컨대 어떤 대학은 '德과 眞理', 어떤 대학은 '사랑과 眞理와 奉仕', 또 어떤 대학은 '自由·正義·眞理'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 속에는 '眞理'가 한결같이 한 덕목을 이루고 있다. 그 '眞理'란 神 또는 神的 存在에 근거한 것이든 哲學的 價値에 근거한 것이든 모두 久遠 不變의 이데아로서 설정된 것일 것이다. 이것은 대학에서 추구하는 學問의 究竟이 곧 眞理 探求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일반적으로 大學의 機能이라 일컬어지는 研究·教育·奉仕가 실은 저 眞理의 구현을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학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 즉 大學인이 모여 각자 자기 인격을 함양하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른 잠재력과 창의력과 판단력을 계발·발전시키며, 나아가 겨레와 인류의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힘쓰는 곳이다. 따라서 모든 대학인은 그의 학문 활동을 더욱 진취적이고 순수하게 추구하는 데 합당한 자유를 천부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인은 이러한 자유를 대전제로 하여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학문을 하는가, 무엇을 위한 삶인가, 무엇이 나의 가치관인가?"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어떤 경우의 물음 앞에서도 나의 존재를 당당히 내세워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교육은 그 대학의 이념에 따라 이와 같은 大學人像을 육성하여 가는 데에 그 機能的 本領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교육의 正道는 '人間化 教育'이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의 한국 대학이 앞서 말한 인간화 교육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풍토와 여건에 처해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否定的 요소가 混在되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크게 돌로 나눈다면, 하나는 직업교육의 편향성이요, 다른 하나는 제도교육의 획일성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미국의 그것을 전수하면서 비롯되었다. 정부 시책 자체가 애초에 유럽식 엘리트 교육이던 것이 미국식 교육과 혼효되면서 여기에 우리의 어려운 실정이 가

중되어 당국의 교육 지표는 표랑하기 시작하고, 이후 朝變夕改하는 교육 지침으로 모든 대학이 左顧右盼하는 와중에서 차라리 미국답게 합리적이지도 못한 이기적 자구책을 방조하는 직업교육만 팽배시킨 것이다. 명문 대학에 들어가 좋은 평점을 받기만 하면 그 ‘학벌’로 좋은 혼처가 보장되고 출세가 수월하다는 사고, 이것을 능사로 삼아 입시에서 취업에까지 결수 경쟁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학이요 사회이다. 마르쿠제가 ‘다소 안락한 지위의 奴婢’, ‘다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從僕’이라고 말한 소시민이 사는 자본주의 계급 사회의 군상을 양산하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학교육의 실상이라면, 이는 인간화 교육의 부제라는 점에서 깊이 자성해야 할 일이라 하겠다. 제도 교육의 反自律의 획일성은 대학교육의 沒個性화로 이 나라 人間化 敎育과 학문의 前途를 한층 심각한 우려 속에 빠뜨리고 있다. 學事行政은 물론 심지어 커리큘럼까지 정부로부터 정책 위주의 행정 지시를 받아 오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교육의 실정이다. 듣건대, 근자에 당국은 정치적 또는 정책적 배려로 대학에 부분적·잠정적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 하나, 이러한 선처마저도 과감히 철회하고 교육적 良識과 각 대학의 특성에 전적으로 맡겨 두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 줄로 생각한다. 이밖에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교육 제정의 빈곤과 만성적인 학원 소요가 대학의 교육 실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國·公立 공히 재정상 교육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는 바는 같을 것이나,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정부의 별도 배려가 없는 한 소기의 교육 계획을 충실히 시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교수의 증원 확보, 교육 기자재 및 학습 환경의 확충 등 교육비의 비율이 일본은 차지하고라도 자유 중국과 대비하여 그 절반 정도의 규모인 우리로서는 대책을 강구하기에 막연하기만 한 실정이다. 이른바 학원 소요는 개중에 학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나 대부분 정치·사회와 관련된 시국 문제로 학교와 교직원과 학생간의 공동체 의식이 침해되고 학습 활동의 결손을 초래하며 대학인 모두의 인간 관계를 경직시켜 학술 연구 풍토를 침체하게 하는 폐풍을 빈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불식되어야 할 것은 대학인 집단을 우범시 하는 정치적 시각의 간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항간에 “한국에는 대학은 있어도 교육은 없고, 교수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 이는 단적으로 우리의 대학이 인간교육에 바탕을 둔 학문 활동을 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인격 형성에 결함을 안고 있는 대학인에게 국가와 사회의 봉사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12년 내지 16년의 제도 교육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정부 당국이나 대학 당사자는 이에 깊이 自愧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시급히 제시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대학은 초연히 대학다움을 견지하기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인지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대학이 비교육적인 대상까지도 교육적 반증 자료로 수용할 수 있는 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는 진리 탐구에 몰두하는 의연한 기개, 사제간의 금도, 학생들의 패기 있고 싱그러운 숨결과 미래지향적 진취 의욕이 여전히 맥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